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여수엑스포 유치 본격 시동

22일 신청서 제출...범정부 차원 붐 조성

다음주 초로 예정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 제출과 함께 박람회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15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시 관계자가 공동으로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BIE(세계박람회사무국)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22일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BIE 규정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유치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국가에만 유치자격을 주도권 되어있는 만큼 최종 경쟁국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유치신청서에는 박람회 주제인 'The Living Ocean and Coast(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와 개최기간, 개최 의의 등이 표기된다. 또 여수박람회 유치활동을 주도할 유치위원장은 오는 30일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며, 현재로서는 김재철 동원

그룹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이번 유치신청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입체적인 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치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치신청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16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박람회 유치 추진상황과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한다. 이와 함께 BIE 주관으로 오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BIE 월드포럼'에도 해수부와 전남도 관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 박람회 여수 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8일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최 예정인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식 및 공연리셉션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 BIE 회원국 외교관들에게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방

침이다.

전남도도 박람회 유치신청을 계기로 국내 및 도내 22개 시·군 등에서 집중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외국인의 출입관문인 인천공항 1층에 대형 컬러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박람회 홍보를 전담할 '박람회 홍보 자원봉사단'을 구성, 시·군별 축제나 행사에 홍보 전담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2007년 상반기 BIE의 현지실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98개 박람회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유치가 성사될 경우 여수 신항지구 7만 5천여 평의 전시장에서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박람회가 열린다. 현재로서는 모로코(타헤라)와 폴란드(브로츠와프)가 2012 박람회 유치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그리스(테살로니키)와 이탈리아(트리에스테)도 유치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DJ '5·18 3주기 추모사'

"5·18은 국민恨 풀기 위한 의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국민의 한(恨)을 풀기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추모사(사진)가 처음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류상영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시절인 1983년 5월22일 워싱턴 교포사회가 주최한 '광주의거



김대중도서관 친필 공개

희생자 3주년 추도식'에서 낭독한 자필 원고를 공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우리는 조국분단의 한, 독재 정치의 한, 군인정치의 한, 빈부 양극화의 한 등 한의 국민이다"며 "광주의거는 한을 풀고자 일어섰던 것이다"고 규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광주의거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군사령관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온 재난"이며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건이었다"고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최진민기자 man21@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는 15일 광주·전남지역의 12대 주요 현안을 각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민원 삼임공동대표, 박광우 정책위원장, 서정훈 집행위원장, 안희욱·정철웅·양철호 삼임공동대표, 박미경 홍보위원장.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좋은 공약' '헛공약' 선정 25일 발표



광주·전남연대, 12개 지역현안도 제시

광주·전남지역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31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이하 광전연대)는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사무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지역 12대 정책 현안을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이를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광전연대는 이날 광주·전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안으로 ▲양극화 해소 시범지역 지정 추진 및 대책기구 구성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행 ▲광주의 허파' 광

주천, '전남의 젓줄' 영산강 수질 살리기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또 광주지역 현안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하철 2호선 건설의 합리적 대안 마련 ▲광주공항 내 균용항 공기 공학 이전 추진 ▲도심 내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남 현안으로는 ▲골프장 무더기 신규 건설 대책 마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

시(J프로젝트) 기본계획 전면 수정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환경오염 예방 근원대책 수립을 내놓았다.

광전연대는 또 광역단체장과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좋은 공약과 헛공약을 각각 10개씩을 선정, 오는 25일 후보자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 검증은 전문가 50명과 시민사회 30명, 일반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의 심의로 이뤄진다.

광전연대는 이날 '정당의 경선 및 공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고령농가 月 30만원 지급 추진

농림부, 2008년부터 차상위층 10만호 보조

농림부가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고령농가 10만호에 대해 월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2월 당정협의 때 제시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10만여 고령농가에 대해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4년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중 65세 이상 농가비율을 추정하면 10만1천여 농가가 된다는게 농림부의 판단이다.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고령농의 탈농에 대비해 양극화 해소

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책으로 당정 간에 일단 도입방점은 합의된 상황이다. 게다가 도시권 차상위 계층과는 달리 영세 고령농은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도 농가나 농지 등 보유재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원은 일단 농특회계 전입금을 활용하고 시·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 등에서 농가당 지원액 등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FTA로 수해를 보는 재계 등 업계쪽에 재원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18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0일까지 13일 동안 공식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은 ▲정당 후보자 추천서 ▲재산·병역신고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및 체납증명서 ▲전과 기록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관할 선거위에 16~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는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의 선거기탁금

을 납부해야 한다. 손지열 중앙선거위원회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and 진남과학대학 (진남과학대학) logo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Bimiflu (비미플루) medicine. It features a family of four smiling and the text '환히 웃는 우리가족' (Our family smiling brightly). The ad promotes Bimiflu as a 1-time effective treatment for various types of coughs (acute, chronic, and phlegm) without the need for multiple doses. It also lists symptoms like difficulty breathing, chest pain, and loss of appetite that Bimiflu can help with. The product is manufactured by Shinpoong Pharmaceutical Co., Ltd. (신풍제약주식회사).